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7년 12월 21일

제07-51호

[상세 내용] 중국경제 동향 및 2008년 전망

양 평 섭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팀장 (psyang@kiep.go.kr, Tel: 3460-1121)

주요 내용

- ▣ 2007년 1~9월 중 중국경제는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상, 투자 억제, 부동산시장 규제 등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11.5%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함.

 - 2007년 중국경제는 국내 투자, 소비, 수출 등 3대 수요요인이 모두 호조세를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음.
- ▣ 물가 상승 압력,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외환보유 증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가하는 통상 압력과 위안화 절상 압력 등이 중국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안정세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월에는 1997년 2월 이후 최고치인 6.5%의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1~10월 중 무역수지도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하였음.
- ▣ 국내 유동성 증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투자 증가, 급상승하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2008년에도 긴축정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관련하여 중앙경제공작회의가 2008년 금융정책에서 긴축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12월 25일부터는 지급준비율을 1%포인트 인상할 계획임.
- ▣ 2008년 중국경제는 투자와 수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국내소비가 회복되면서 하반기에는 10% 중반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긴축조치로 투자 증가율이 소폭 둔화되고, 수출에 대한 규제로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국내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뒷받침할 것임.
 - 과도한 무역흑자와 외환보유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절상 압력으로 위안화 환율은 내년에도 점진적인 절상 추세가 지속될 것이며, 절상 속도는 2007년에 비해 다소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1. 2007년 중국경제 동향: 1~9월 중국경제는 11.5% 성장

-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상, 투자 억제, 부동산시장 규제 등의 거시경제 안정화 조치의 영향으로 3/4분기 중국경제는 2/4분기(11.9% 성장)에 비해 다소 둔화된 11.5%의 성장률을 기록함.
- 중국정부는 2007년 중에만 지급준비율을 10회(9%에서 14.5%로 인상), 금리를 5회(1년 만기 대출금리 기준 6.12%에서 7.29%로 인상) 인상하는 등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실시함.
-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소비, 투자, 수출 등 3대 수요요인이 모두 호조세를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1~10월 중 국내소매판매는 증시 호황에 따른 소비 여력의 증가, 농민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 등 각종 소비확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전년동기대비 16.1% 증가함.
 - ※ 10월 중 국내 소비재 판매 증가율은 18.1%로 국경절(10월 1일) 특수 등으로 인해 1999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2006년 하반기 이후 감속 경향을 보이던 고정자산투자도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여전히 높고 농촌, 중서부, 동북지역 등 소외지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금년 1~10월 중에는 전년동기대비 26.9% 증가함.
 - ※ 2007년 도시지역 투자 증가율: 1~3월 23.7% → 1~6월 25.9% → 1~10월 26.9%
 - ※ 1~10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을 지역별로 보면 연해지역은 22.2% 증가에 그친 반면, 중부 지역과 서부지역은 각각 36.1%와 30.5%씩 증가함.
- 1~10월 중 중국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7.1%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 우대 축소, 위안화 절상, 가공무역 규제 강화 등 수출억제 조치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면서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음.
 - ※ 중국의 수출 증가율: 1분기 27.9% → 2분기 27.4% → 3분기 26.2% → 10월 22.3%
 - ※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수입은 19.8% 증가한 데 그쳐, 무역흑자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59.0% 증가한 2,12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6년 3/4분기 이후 둔화세를 보이던 총통화 증가율도 금년 7월 이후 전년동기대비 18.5% 증가하여 금년도 억제선(16%)을 상회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금융기관의 대출액 증가율도 전년동기대비 2.6%포인트 높은 18.0% 증가율을 유지함.

표 1.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연도/분기	경제 성장률	도시고정 자산투자 증가율 ²⁾	소비재 소매총액 증가율	무역수지 (억달러)	수출입 증가율		CPI 상승률	총통화 증가율 ³⁾	FDI 유입액 (억달러)	평균환율 (위안/달러)
					수출	수입				
2005	10.4	27.2	12.9	1,019	28.4	17.7	1.8	17.6	603.3	8.19
2006	11.3	24.5	13.7	1,775	27.2	19.9	1.5	16.9	630.2	7.97
1/4분기	10.4	29.8	12.8	233	26.5	24.9	1.2	18.8	142.5	8.04
2/4분기	11.5	31.9	13.9	381	24.0	18.5	1.4	18.4	141.8	8.01
3/4분기	10.6	24.3	13.8	485	28.7	22.0	1.3	16.8	141.6	7.96
4/4분기	10.4	17.6	14.3	676	28.9	15.5	2.0	16.9	204.3	7.86
2007.1~10	11.5 ¹⁾	26.9	16.1	2,124	26.5	19.8	4.4	18.5	540.0	7.65
1/4분기	11.1	25.3	14.9	465	27.9	18.2	2.7	17.3	158.9	7.73
2/4분기	11.9	27.4	15.8	661	27.4	18.2	3.6	17.1	160.0	7.68
3/4분기	11.5	26.1	16.8	733	26.2	20.7	6.1	18.5	153.3	7.56
10월	-	26.9	18.1	271	22.3	25.5	6.5	18.5	67.8	7.50

주 : 1) 1~9월 중 성장률임.

2)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누계기준).

3) 말잔 기준임.

자료: 중국통계연감(2006); 중국국가통계국; 중국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 중국상무부 등.

2. 2007년 중국경제의 현안

- 물가 상승 압력,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외환보유 증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가하는 통상 압력과 위안화 절상 압력 등이 중국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샤빈(夏斌)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금융연구소장은 중국경제에서 과도한 무역흑자, 과잉 투자, 과잉 유동성 등 3과(過) 현상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함.

가. 물가 상승 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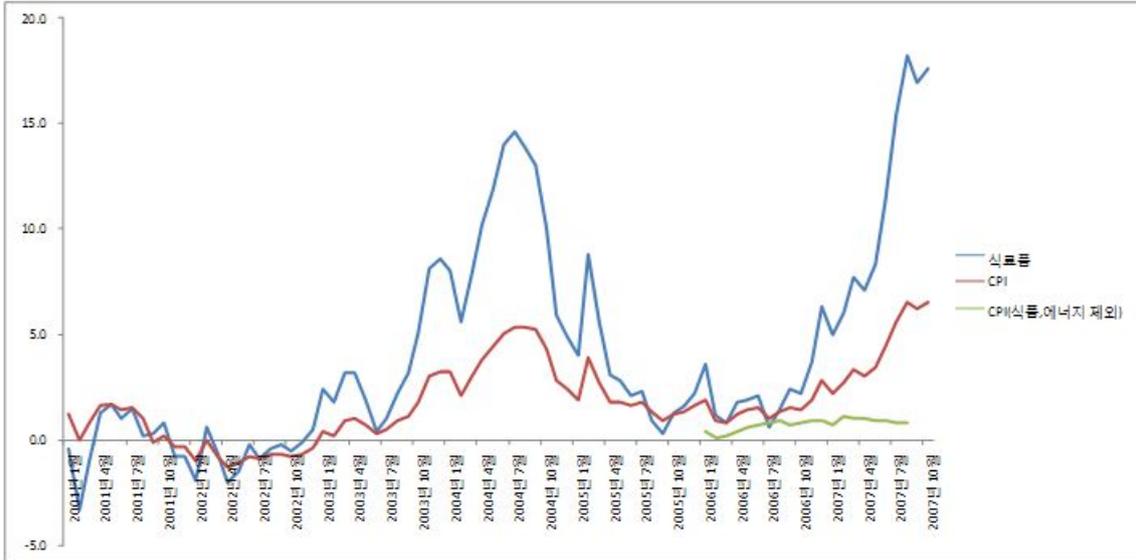
- 2007년 3/4분기 중 소비자물가는 연간 억제선(3%)을 대폭 상회하는 6.1%의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10월에도 6.5% 상승하여 1997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함.

- 현재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은 식료품 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할 경우 CPI는 1% 미만의 상승률을 유지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다는 주장이 대세임.¹⁾

※ 1~10월 중 식료품 가격 상승 내역을 보면 식량(6.7%), 육류 및 육가공품(38.3%), 식용유(30.1%), 계란(15.0%), 채소(29.9%) 등의 가격이 급등하였으며,²⁾ 이러한 현상은 대체에너지 개발로 인한 사료용 옥수수 등 국제 곡물가격 상승, 물가 상승 기대에 따른 가수요 증가, 소득 증대에 따른 육류소비 증가 등 종합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1.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단위: %)



자료 : CEIC.

■ 그러나 중국의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식료품 가격 상승 등 단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과,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인플레이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공존하고 있음.

- 후자의 경우 최근의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국 사회 전반에 걸쳐 인플레이 압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의 전조라고 주장하고 있음.

○ 10월 중 기업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6.5%에 달하면서 그동안 둔화세를 유지하던 공산품 출하가격 상승률이 상승세로 전환됨으로써 안정세를 유지하던 공산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중국인민은행은 식품가격이 단기간 내에 안정될 가능성이 적은 반면, 에너지 자원 가격 상승 압력이 높고 임금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시작된 인플레이션 기대가 여타 제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함.³⁾

1) 중국의 소비자물가 지수 구성: 식품 34%, 오락 및 교육 관련 서비스 14%, 주거 13%, 의료보전 및 개인용품 10%, 교통 및 통신 10%, 의류 9%, 가정설비 및 유지보수 서비스 6%, 담배 및 주류 4%임 (東方早報, 2007년 8월 14일자 참조).

2) 중국 도시지역 소비지출의 약 7%가 육류 소비에 지출되고 있으며, 2006년을 기준으로 중국 가구의 육류 소비 중 70%가 돼지고기에, 30%가 계란 소비에 사용되었음.

그림 2. 중국의 공산품 출하가격과 생산자물가

(단위: %)



자료 : CEIC.

나. 과도한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외환보유고 급증

- 급속한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외화 유입이 지속되면서 2007년 10월 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06년 말 대비 3,887억 달러 증가한 1조 4,550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는 곧 국내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다만 외환투자공사(CIC)의 자본금 투입 및 국내적격투자자(QDII)의 해외투자 장려 등 외화유출을 위한 노력으로 외화유출이 늘어남에 따라, 10월 중 외환보유 증가 규모가 214억 달러 (1~9월 중 월평균 367억 달러 증가)에 그치는 등 증가폭은 둔화됨.
-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가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확대, 무역수지 흑자 확대, 단기 투기성 자금 유입 등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2005년까지는 중국의 외국인투자자와 투기성 자금 유입이 외환보유고 증가를 주도하였으나, 2006년 이후에는 무역흑자 확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중국인민은행(2007), 『3·4분기 중국통화정책보고서』. (11월 발표)

표 2. 중국의 외환보유고 현황과 증감요인

(단위 : 억 달러)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10월	
외환보유고	1,656	2,122	2,864	4,033	6,099	8,189	10,663	14,550	
외환보유고 증가분	109	466	742	1,168	2,067	2,089	2,475	3,887	
증감요인	직접투자	408	469	527	535	606	603	630	540
	무역수지	241	231	303	254	328	1,021	1,775	2,124
	오 차	-540	-234	-88	380	1,132	465	69	1,223

자료: 국가외환관리국; 중국해관통계; 중국상무부 외국인투자 사이트 등.

다. 위안화 절상 압력 지속

- 2007년 11월 31일 현재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7.40위안/달러로 복수통화바스켓제도가 도입(2005년 7월 21일)된 이후 현재까지 9.6%가 절상됨.

- 특히 2007년 들어 11월 31일까지 5.53%가 절상되는 등 절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 절상률 추이: 2005년 0.48%, 2006년 3.35%, 2007년 1~11월 5.53%

- 중국인민은행이 2007년 5월 21일부터 은행간 외환시장의 대미달러 환율 변동폭을 종전의 $\pm 0.3\%$ 에서 $\pm 0.5\%$ 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추가적인 변동폭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⁴⁾

- 변동폭 확대 이후 8월 말까지 위안화의 대미 달러환율은 1일 평균 0.021%씩 절상되었으며, 이것은 2007년 초부터 제도 변경 이전까지의 1일 절상폭(0.019%)에 비해 약간 높은 수치임.

※ 변동폭 확대 이후 6월 12일(1일 변동폭 0.40%)과 7월 10일(0.32%)에는 0.3%를 넘어선 바 있으나 급격한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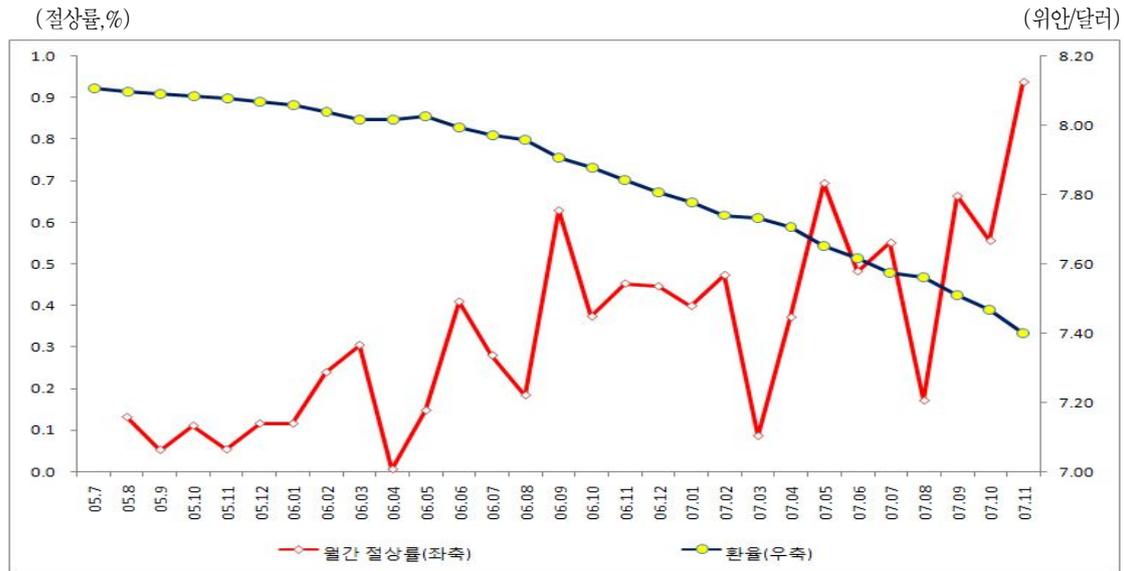
- 이러한 결과는 변동폭 확대 이후에도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나 절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 인민은행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그러나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가중되면서 11월에는 전월대비 0.94% 절상을 용인하는 등 세계여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미 달러에 대한 1일 변동폭은 1994년 환율 단일화 이후 $\pm 0.3\%$ 에서 변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왔으며, 달러 이외의 외화에 대해서는 2005년 9월 이후 $\pm 3\%$ 이내에서 변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11월 26일 중·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였고, 11월 27일 중·EU 고위급 경제회담에서도 트리셰(Trichet) ECB 총재가 위안화 절상 가속화를 촉구하였으며, 12월 1일 개최된 중·일고위경제회담에서 후쿠시로 누카가 일본 재무상도 위안화 환율의 빠른 절상을 요구하였음.

그림 3. 2005년 7월 이후 월평균 위안화 환율 추이



자료 : 국가외환관리국.

3. 2008년 중국경제 전망

가. 경기 과열과 물가 상승 방지를 위한 긴축조치 예상

- 내년도 경제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중국 공산당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폐막된 12월 5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내년에 긴축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
-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긴축방침을 밝힌 것은 1997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며, 溫 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으로 ‘온건(穩健)한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금융정책에서는 ‘온건’에서 ‘긴축(從緊)’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 최근 3년간 중앙경제공작회의에 나타난 중국 공산당의 성장전략은 2005년의 ‘빠른 양질의 성장(又快又好)’에서 2006년에는 ‘양질의 빠른 성장(又好又快)’으로, 2007년에는 ‘안정 속의 발전(穩中求進)’과 ‘양질의 성장 우선(好字優先)’으로 전환됨(『新華社』, 2007년 12월 9일자).

- 이에 따라 내년도 중국의 경제정책이 '안정화 정책'에서 '긴축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며, 특히 경기 과열과 물가 상승 방지가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목표가 될 것임.
- 재정정책에서 안정을 강조한 것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농촌과 중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금융정책에서는 긴축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과잉 유동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부동산 및 증시 버블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적 의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음.
-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통화긴축 방침이 발표된 이후 중국인민은행은 지금까지 매번 0.5%포인트씩 인상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12월 25일부터 위안화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1%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함(12월 8일).

표 3. 2006년 이후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상 조치

일 시	주 요 내 용
2006년	4.28 대출 금리 인상(대출금리 1년 만기 기준: 5.58% → 5.85%)
	7.5 위안화 예금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상(7.5% → 8.0%)
	8.15 위안화 예금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상(8.0% → 8.5%)
	8.19 예금 및 대출 금리 인상(대출금리 1년 만기 기준: 5.85% → 6.12%)
	11.15 위안화 예금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상 발표(8.5% → 9.0%)
2007년	1.15 위안화 예금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상(9.0% → 9.5%)
	2.25 위안화 예금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상(9.5% → 10.0%)
	3.19 예금 및 대출 금리 인상(대출금리 1년 만기 기준: 6.12% → 6.39%)
	4.16 위안화 예금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상(10.0% → 10.5%)
	5.19 위안화 예금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상 발표(10.5% → 11.0%) 외화예금 지급준비율 인상(4.0% → 5.0%) 예금 및 대출 금리 인상(대출금리 1년 만기 기준: 6.39% → 6.57%)
	6.5 위안화 예금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상 발표(11.0% → 11.5%)
	7.21 예금 및 대출 금리 인상(대출금리 1년 만기 기준: 6.57% → 6.84%)
	8.15 위안화 예금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상 발표(11.5% → 12.0%)
	8.22 예금 및 대출 금리 인상(대출금리 1년 만기 기준: 6.84% → 7.02%)
	9.15 예금 및 대출 금리 인상(대출금리 1년 만기 기준: 7.02% → 7.29%)
	9.25 위안화 예금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상 발표(12.0% → 12.5%)
	10.25 위안화 예금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상 발표(12.5% → 13.0%)
	11.26 위안화 예금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상 발표(13.0% → 13.5%)
12.25 위안화 예금 지급준비율 1.0%포인트 인상 발표(13.5% → 14.5%)	

자료 : 중국인민은행 사이트에서 참고하여 정리.

- 내년도 중국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경기 과열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적절한 긴축기조와 일정 수준의 거시경제 조절강도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등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정도로 강도 높은 긴축조치가 실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나. 2008년 전망: 고성장 속에 경제성장률은 소폭 둔화 전망

-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해 2008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연간으로는 2007년(11.5% 전망)보다 다소 하락한 10% 중반대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예측기관들도 2007년도 중국경제 성장률이 11.3~11.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10.1~11%로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08년에는 수출 증가율 둔화에 따른 성장 둔화 요인을 국내 소비와 투자의 호조가 보완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국의 통상 압력 증대, 위안화의 추가적인 절상, 중국정부의 수출에 대한 우대조치 축소,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 강화 효과가 나타나면서 2007년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3/4분기 이후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음.
- 금융기관에 대한 창구 규제와 신규 사업에 대한 심사 강화 등 투자 규제 조치가 강화되면서 투자 증가율이 금년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이나, 지방과 민간기업에 의한 투자가 지속됨으로써 급격한 둔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해외수요 위축을 만회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국내소비 진작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림픽 특수, 농촌지역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 증대 등으로 국내소비는 2007년과 비슷한 15% 내외의 증가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위안화 환율 절상의 가속화는 투기자금 유입 증가 등으로 유동성 과잉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점진적 절상 원칙이 지속될 것이며, 물가안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중앙은행이 환율 변동 폭의 점진적 확대 방침을 천명하고 있어 2008년에는 위안화 절상폭이 2007년에 비해 소폭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주요 기관별 2007~2008년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기 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경상수지/GDP	
	2007	2008	2007	2007	2007	2008
World Bank	11.3	10.8	4.6	3.8	11.9	10.7
Global Insight	11.5	11.0	4.1	3.6	8.9	6.1
IMF	11.5	10.1	4.5	3.9	11.7	12.2
EIU	11.4	10.1	4.0	3.0	10.5	9.7
중국사회과학원	11.6	10.9	-	-	-	-
중국인민은행	11.6	10.8	-	-	-	-
투자은행 평균 1)	11.5	10.6	-	-	-	-

주: 1) 9개 투자은행의 평균치임.

자료: 각 기관 사이트 및 국제금융센터.